

## 금호타이어, 대한민국 기술우수상 수상

금호타이어가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<2008 대한민국기술대상> 시상식에서 대한민국기술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(우수상)을 수상했다.



우수상을 수상한 금호타이어 항공기타이어개발팀 김산 부장은 “금호타이어의 항공기 타이어가 기술력을 대외로 인정 받았다”며 “국내 최초로 항공기 타이어를 개발해 수출활로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뜻 깊은 의미를 가진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항공기 타이어는 운용 조건이 고하중, 고속, 고압 등으로 까다로워 안전성 확보가 매우 어려우며 구조설계기술, 소재설계기술, 성능예측기술 및 생산기술 등이 매우 중요하다.

이에 금호타이어는 초음속 고등훈련기(T-50) 국산화 사업에 참여해 T-50기종의 주륜 및 전륜 타이어와 항공우주 부품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B737-400 기종의 주륜 타이어를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했다.

금호타이어는 2005년 BASA 시범사업체로 선정돼 2007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술표준형식승인(KTSO) 인증을 획득했으며, 미연방항공청(FAA)으로부터 기술표준품형식승인(TSO) 인증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항공기 제작사와 타이어 공급협의를 진행하고 있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08/12/23>